

순수미술도 변화 바람

AI를 입은 작품, 실시간 말 걸고 '가상 애완동물'도 키워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순수미술계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다. 지금 서울 미술현장에서 그것을 실감할 수 있다. 최근 개인전을 시작한 국내의 유명 아티스트 3명의 공통점이 모두 AI를 중요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니 말이다.

파레노, 작품 위한 새로운 언어 만들어
프랑스 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작가인 필립 파레노는 지난달 28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개막한 대규모 개인전 '보이스(VOICES)'에서 AI를 탑재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고 배우 배우의 목소리로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탑 형태의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13.6m 높이에 달하는 신작 '막(세포나 신체조직의 막)'은 현재 미술관 야외 데크에 설치되어 있다. 온도·습도·풍속·소음·대기오염·지면의 미세한 진동 등 각종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42개의 센서를 장착했으며, 이 정보를 데이터 신호와 소리 형태로 미술관 내부로 전송해 미술관 내부에 설치된 작품이 이에 따라 켜지고 꺼지거나 다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한다.

파레노는 26일 리움미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의 존재가 이 탑에 살면서 주변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는 설정"이라고 설명했다. "42개의 센서가 모두 함께 데이터 신호를 생성하고 이 신호는 언어로 변환됩니다. 이 존재는 먼저 천천히 느끼기 시작하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존재에게 인간의 목소리를 부여하고 싶어서 한국의 훌륭한 배우 배우들과 함께 작업했고, 이제 이 존재는 배우의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작가는 수년 동안 매 전시마다 "작은 기상 관측소처럼" 미술관 공간 외부에 센서를 설치하여 외부 온도와 같은 환경 요소로부터 닫혀 있는 미술관 내부의 작품과 연결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파레노는 언어학자와 협력하여 작품 '막'을 위한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다. 이 새로운 언어 'A'(2024)를 학습하면서 작품 '막'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집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여 말을 하는 개체가 된다"고 미술관은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마치 인형을 부리는 인형사처럼 전시를 감독하며 미술관은 거대한 오토마톤(자동기계)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AI를 이용한 시스템이 미술전시 전체를 자동 제어하는 형태에서 나중에는 AI가 자체적으로 예술을 창조하는 쪽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고 작가에게 묻자, 작가는 "AI는 구성을 위한 훌륭한 도구, 작품을 위한 악기라고 생각한다"며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뉴욕에 본사를 둔 글래스톤의 서울 갤러리에서는 '가상 생태계'로 유명한 미국 작가 이안 첵이 지난주부터 뉴로심볼릭(neuro-symbolic) 인공지능 모델이 구동하는 거북이 '사우전드'의 일상을 극화한 신작 '사우전드 라이브스(Thousand Lives)'를 선보이고 있다.

파레노, 센서 42개 부착한 탑 설치
소음 등 데이터 수집해 소리로 전환
이안 첵, 가상 생태계 분야 선구자
AI가 구동하는 거북이 일상 전시
노상호, AI 이미지 토대 그림 그려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적 인간 표현



1 필립 파레노 개인전 '보이스' 전경. 2 이안 첵 '사우전드 라이브스' 한 장면. 3 노상호 '홀리' 연작 중 하나. [사진 리움미술관-글래스톤-아라리오 갤러리]



"AI는 작품 구성을 위한 훌륭한 도구"
이 전시에는 두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하나는 'BOB 이후의 삶: 챗GPT 연구 경험'(2021-22)으로, BOB이라는 AI 공생체와 함께 지난 최초의 어린인 가상의 캐릭터 챗GPT의 삶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품은 2022년 리움에서 열린 이안 첵 개인전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또 다른 작품 '사우전드 라이브스'(2023-24)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다. 지난 달 22일 글래스톤 서울에서 취재진과 만난 작가는 "이 작

품은 챗GPT의 지지분한 아파트라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챗GPT의 애완 거북이 '사우전드'의 일상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는 느린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즉, 90년대 유행한 '다마고치'의 최첨단 진화 버전이라 할 만하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이 거북이는 백지상태에서 새로 마주치는 모든 것이 자신의 내적 본능과 관련이 있는지를 학습하고 친화적인 환경과 위협적인 환경을 구분하는 인식을 발전시킨다. 그러다가 적응에 실패하면 죽게 되지만 '천 개의 삶'이라는 제목처럼 전생의 기억 20%를



않고 편집한 다음 캔버스에 에어브러시로 그 이미지를 옮겨 그린 작품들이다.

노상호 작가는 이러한 작품을 1년 전 아라리오 갤러리 그룹전을 통해 처음 선보인 바 있다. 그는 당시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체에 매개로 한 것"이라며 "에어브러시를 쓴 것도 내 손길이 직접 닿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AI를 쓰는 작업 방식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협업 작업의 취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왜 (디지털 이미지가 범람하는 세상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리는가 생각하다가, 우리는 결국 중간적인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닌가, 완전히 디지털화되지도 않고 완전히 아날로그이도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세상이 완전히 메타버스로 바뀌지 않는 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한 중간적인 우리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 /문소영 기자 symoon@joongang.co.kr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Attention!

뉴욕 유명 화랑이 짊었다, 한국 작가 8인의 구상화

외국계 주요 화랑들이 외부 큐레이터를 초청해 한국 작가를 발굴하는 그룹전을 여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뉴욕 기반 주요 화랑인 페이스갤러리 서울도 여기에 동참해서 'Time Laps e: 어느 시간에 탑승하시겠습니까?' 전시를 열고 있다. 인물이 중심을 이루는 상징적인 구상화를 그린다는 공통점이 있는 8인의 한국 작가를 선보이는 전시다.

표현주의적인 스타일로 한국의 도시 풍경과 역사를 그려온 유명한 73세 작가 서용선, 한국인의 일상을 민중미술 걸개 그림 형태로 그리는 41세 작가 이우성, 큐비즘과 아르데코를 섞은 듯한 입체적 형태의 자화상을 소소한 일상적 배경으로 그려서 자신의 심리와 내면을 고찰한 34세 작가 김진희 등 다양한 스타일과 연령대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그 외에도 김정옥·류노아·박광수·이재현·정수정 작가가 참여한다.
"8명의 작가들은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기도 하고, 인간 내면과 그 본질에 대해 인물의 형상을 포탈 삼아 공간을 확장하기도 하며,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한다."고 이 전시를 기획한 맹지영 큐레이터는 말했다.
/문소영 기자 symoon@joongang.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